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관악초청강좌 운영위원장을 만나다



Q 간략하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A 관악초청강좌는 기초교육원이 설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공개강좌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하여, 되도록 학생들의 공통적 관심사에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학문적인 조류와 문화적인 경향,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관악초청강좌의 운영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연을 통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알게 된 현실 문제나 학문적 관심을 놓고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한다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요. 특히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라는 것이 주로 전문적인 학문 분야에만 치중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전문적인 연구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실천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요. 되도록 그런 분들의 새로운 경험을 들어보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관악초청강좌는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을 위하여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초대석에는 관악초청강좌의 운영위원장 권영민 교수(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만나보았습니다.

Q 2004년 2학기부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한미국대사부터 축구해설위원, 아나운서, 소설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매 학기말이 되면 그 다음 학기의 관악초청강좌에서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선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각 단과대학의 교수님들 십여 분 정도가 참여하여 초대 인사를 추천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악초청강좌의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논의합니다. 초청할 연사의 후보가 정해지면, 관악초청강좌의 일정(목요일 오후 4시)에 맞춰 연사의 초청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체 스케줄을 정합니다.

Q 지난 학기 초청강좌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세요.

A 관악초청강좌와 같은 공개강좌는 청중으로서의 학생들의 참여도가 그 성패를 좌우하지요. 제가 이 강좌의 운영자로서 제일 아쉽게 느끼고 있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강좌에 참여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게 목요일 4시 강의시간이 일반 강의시간이랑 많이 겹쳐서 학생들에게 좋은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요. 또 한 가지는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운영에 차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였는데, 정부 부처의 회의 일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취소한 적이 있어요. 물론 유엔사무총장이 확정된 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하였어요. 지난 학기에 월드컵과 관련하여 이용수 해설위원과 같은 분도 초대해서 스포츠 문화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교 안에서는 사실 그런 대화의 장이라는 게 거의 드물지요. 그리고 명창 안숙선 여사가 와서 직접 공연을 해 보이면서 국악인 무대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무대가 열렸던 강당이 그런 공연에 부적합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들을 위해 안숙선 명창께서 아주 열심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국악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모르고 있던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도 나눠주셨구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이미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날의 한국 대학생들의 교양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과 교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나는 옛날보다는 세상이 바뀌고 생활이 복잡해졌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인화 교수를 초청했을 때 컴퓨터 게임스토리를 구상하고 그것을 게임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를 했는데, 청중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전문 게이머 이상으로 프로그램 기술과 컴퓨터 게임의 운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Interview

대학에서의 지식과 교양이란 대학 교육의 근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였지만, 대학교육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학이나 버클리대학 같은 곳에서 제가 한국문학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개강좌에 참여하기도 하였어요.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있어서 그걸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에서는 학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포럼, 세미나, 특강 등을 깊이 있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소개가 되어서 학생들이 지적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매 학기 관악초청강좌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꼭 두 세 명 정도 초청했는데 그것은 대학이란 곳이 젊은이들이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 꿈과 낭만을 찾아가는 열정이나 노력이 옛날보다 덜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Q 한국 대학생들의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나는 대학이 최고의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며,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교육원에서 일반교육이나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고급 전문 지식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폭넓게 하자는 뜻이 포함된 것이지요. 최근에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편협하게 어느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보이는데, 물론 자기 전공영역에서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목표이지만 그것을 위해 가능한 폭넓은 일반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육,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을 조화롭게 구성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노력이 대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영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와서 영어만이 아니라 한, 두 개 다른 외국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보는 기회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양과 기초교육이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는 대학입시제도가 너무 많은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어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전부 왜곡되어 버린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대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해야 했을 내용들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학습되었어야 할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대학에 들어와서 글쓰기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텍스트의 독해를 위해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고사에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대로 미루어 두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한자 공부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지요. 최근 대학교육에서 일반교육,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폭넓고 깊이 있는 대학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될 일반교양과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 교육, 학술논문 작성법, 말하기 교육 등과 같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관악초청강좌를 통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은 전공에 대해 막연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관악초청강좌는 그야말로 공개강좌입니다. 초청 연사 가운데에는 대학교수님도 있지만 전문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활동하는 과학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언론기관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문학 예술 영역에서 창작 활동하는 문인 예술가 등 각종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지난 학기에 MBC 손석희 아나운서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님이 되었지만, 손석희 아나운서는 언론을 보는 시각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언론에 관심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강연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구체적인 직업의 선택 문제를 연관시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봐요. 앞으로도 관악초청강좌는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현장체험을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Q 선생님께서 학부를 다니실 때 기초교육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A 내가 대학에 다녔던 60년대 후반은 시대적 상황도 혼란기였고, 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보다는 사회에서 이뤄지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교양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행사나 예술 행사 등에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문리대 시절에 ‘학림제’와 같은 축제를 하면서 각계 인물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런 건 많아야 일 년에 한번이었고 반복적으로, 폭넓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양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을 함께 모으기도 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산시켜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악초청강좌는 기초교육원이 뒷받침하면서 이미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악초청강좌에 참여하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리 : 김새미나 / 사진 : 이수정